

등록번호	수산자원연구소-5387
등록일자	2019. 07. 11.
결재일자	2019. 07. 11.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연구사	수산자원조성담당	지방서기관	
		2019. 7. 11.	
정남주	이의진	신정만	
협조자	★주무관 고안식		

수산자원 회복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2019 조피볼락 방류 완료보고



2019년 조피볼락 방류 완료보고

인천지역 연안어장 어족자원 증대를 위해 우량의 조피볼락 치어를 대량 생산하여 연안 어장에 방류함으로써 수산자원 회복 및 어획량 증가에 따른 생산성 향상으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I 사업개요

- 방류일시
 - 2019. 6. 25(화) 중구
 - 2019. 7. 9(화) 강화군
- 사 업 량 : 치어 45만미 (전장 6cm 내외)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해역(20만미)
 - 인천광역시 강화군 후포항해역(25만미)
- 운송방법 : 활어차(5t) 7대, 관용차량 1대
- 방류방법 : 선착장 방류

II 방류일정

- 1차 중구 무의도 해역(2019. 6. 25(화))

시 간 별	추 진 일 정	비 고
06:30 ~ 07:30	활어차 집결 및 상차(수량파악 병행)	
07:30 ~ 09:30	이동(연구소 ⇒ 중구 광명항)	참석자 개별 이동 집결
09:30 ~ 11:00	방류	
12:00 ~ 15:00	이동(중구 광명항 ⇒ 연구소) 및 해산	

○ 2차 강화군 후포항 해역(2019. 7. 9(화))



시 간 별	추진 일정	비 고
05:30 ~ 07:00	활어차 집결 및 상차(수량파악 병행)	
07:00 ~ 10:00	이동(연구소 ⇒ 강화군 후포항)	참석자 개별 이동 집결
10:00 ~ 12:00	방류	
12:00 ~ 15:00	이동(강화군 후포항 ⇒ 연구소) 및 해산	

III 행정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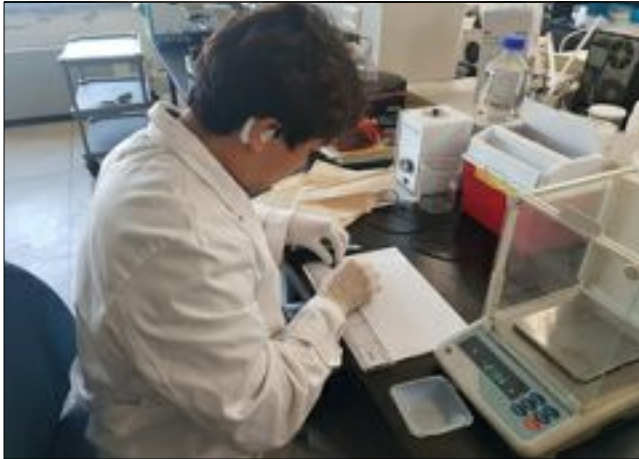
- 방류차량 : 활어차(5t) 3대 임차, 관용차량 1대, 활어차(5t) 4대(강화군 협조)
- 방류홍보 : 홍보자료 해당부서 통보
- 기타홍보 : 홍보용 현수막 부착(수송차량 등)
- 사후관리 : 방류 후
 - 관할 수협 및 어업인들에게 방류내용, 자원조성 필요성 등에 대한 홍보
 - 방류수역에 대해 일정기간 어구제한, 포획 등 필요한 보호조치 강구

붙임

방류 해역도

	
<p>1차 조피볼락 치어 방류해역 (중구 무의도 광명항해역)</p>	<p>2차 조피볼락 치어 방류해역 (강화군 후포항해역)</p>

IV 방류사진



조피불락 치어 크기 측정



조피불락 치어 무게 측정



조피불락 치어 무게 측정



조피불락 치어 채포 작업



조피불락 치어 채포 작업



조피불락 치어 상차



치어 방류(1차)



치어 방류(2차)



치어 방류(1차)



치어 방류(2차)



치어 방류(1차)



치어 방류(2차)

인천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
창제 06면

중부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
종합 03A면

인천교량 상·하계를 잇는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2018년 세월호 침몰 이전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올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는 2018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기 직전인 2015년 상반기 이용객 수(4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인천항 연안여객선 상반기 이용객 46만여명

작년에 15.1% 증가 -원안대선 130만명 넘길 듯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휴가철 최대 폭과 추이 규명되며 불교는 여객선에 더 많은 편을 고려하면 6년 만에 처음으로 연간 10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같은 이용객 회복세는 원안대선 승선객도, 인천시인 승선객도 마찬가지다.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상반기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했다. 이는 2018년 4월 세월호 침몰로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급감하기 직전인 2015년 상반기 이용객 수(4만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치대선 등 4개 선사가 백현도, 연평도, 대청도, 이도, 문도 등 5개 섬으로 여객선을 운항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 이후 인천-제주 여객선의 승객 수요는 재개하면서 내년에는 이용객 증가세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항만공사는 연안여객선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과 대합실 등 터미널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9일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산자원 조사 및 어종 소득증대를 위해 강화도 후포항에서 어민들과 어종을 함께 하고 있다. (인천시 제공)

경인일보

2019년 07월 10일 (수)
종합 01A면



'아찔한 떠서' 문학경기장 내 인공암벽장 무더운 기온을 보인 9일 인천시 마추출구 문학경기장 내 인공암벽장에서 등호언어 부른 학생들. (김민수 기자 yong@kyeongin.com)

수산자원, 주꾸미·갑오징어 등 치어 방류

수산자원 회복·소득 증대 일환
강화 후포항·중구 삼목항서 진행

인천시 수산자원연구소가 연안지역 수산자원을 위한 치어방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연구소는 9~10일 양일간 수산자원 증진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강화군 후포항 방파제 조교와 조교의 중구 삼목항 방파제 주꾸미와 갑오징어 치어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종은 조교의 주꾸미, 갑오징어는 지난 4월과 6월 방류한 어종과 다른 치어였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치어방류는 강화군 후포항 방파제 조교와 조교의 중구 삼목항 방파제 주꾸미와 갑오징어 치어 방류를 실시했다. 이번에 방류한 어종은 조교의 주꾸미, 갑오징어는 지난 4월과 6월 방류한 어종과 다른 치어였다.